

보도일시 (인터넷) 2025. 9. 7.(일) 11:00, (지면) 2025. 9. 8.(월) 조간 배포 2025. 9. 5.(금) 오후

국민이 안심하는 추석 귀성길, 연안여객선 특별점검 나선다

- 9.8(월)부터 19(금)까지 12일간 관계기관 합동 여객선 전수 특별점검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9월 8일(월)부터 19일(금)까지 12일간 전국 연안여객선 148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는 10월 3일(금)부터 9일(목)까지로 길어, 여객 수요가 많은 평시 대비 약 9.9% 증가한 일평균 약 51,000명의 귀성객과 관광객이 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경찰청, 지자체 및 국민안전감독관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여객선의 안전 운항과 승객 안전관리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선체·기관·구명설비 등 주요 설비 관리 상태, ▲승·하선 안전관리 인원 배치, ▲선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사자 작업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하여 이용객과 종사자 모두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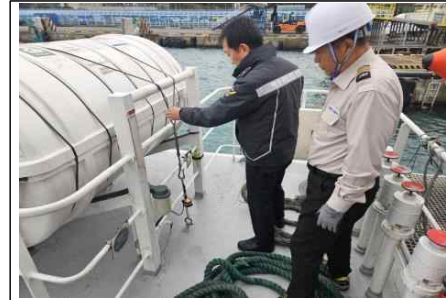
점검 결과 확인된 경미한 결함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10.2~12) 전까지 개선하여 연휴 기간 안전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추석 연휴는 많은 국민께서 고향을 찾고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인 만큼, 여객선 안전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사전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	책임자	과 장	심상철 (044-200-5730)
		담당자	주무관	김동규 (044-200-5737)
			해사안전감독관	장종휘 (044-200-5761)

참고

사진자료



↑ 구명뗏목 외관 점검



↑ 기관실 누유 여부 점검